

‘군함도’ 첫날 97만 흥행... 또 스크린 독점 논란



배우 황정민·소치섭·송중기가 주연을 맡은 영화 '군함도' (감독 류승완·사진)가 스크린 독점 논란 속에서 역대 개봉 영화 오프닝 흥행 신기록을 수립했다. 28일 배일을 벗은 '군함도'는 97만 516명(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기준)을 동원해 지난 6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미이라' (87만2966명)가 세운 기록을 갈아치웠다. 누적 관객수는 사전 시사회로 '군함도'를 본 관객을 포함해 99만1975

역대 오프닝 신기록... '미이라' 87만 갈아치워 상영관 2027곳 확보...CGV "좌석점유율로 평가"

영. 한국 영화 중 역대 최고 오프닝 성적은 '부산행' (2016년)이 보유한 87만2966명이었다. '군함도'의 성과가 스크린 독점을 거름 삼아 일군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개봉 당일 '군함도'는 전국 2027개 스크린에서 1만174회 상영됐다. 지난해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가 1991개 상영관에서 걸린 것을 뛰어넘는 수치다. 전국의 전체 상영관이 2500여 개인데 2027개 관을 확보한 '군함도'의 스크린 점유율이 37% 수준인 것은 하나의 상영관에서 하루 동안 여러 편의 영화를 트는 교차상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단순히 상영관 수가 아니라 좌석점유율로 평가해야 하는 반박도 있다. 이 날 '군함도'의 좌석점유율은 52.8%로 최근 한 달 내 개봉된 영화 중 가장 높다. 같은 날 개봉돼 810개 상영관을 확보한 '슈퍼배드'가 47.7%로 2위다. 지난주 개봉돼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던 '넵케르크'의 좌석점유율은 28.9%로 하락했다. 쉽게 설명하면, '군함도'를 상영하는 1000좌석 중 528좌석에 관객이 앉은 반면 '넵케르크'는 289좌석만 찻단 의미다. 공석률을 고려했을 때 '군함도'를 상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었던 셈이다. CJ CGV

측은 "좌석점유율 기준으로 관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영화에 더 많은 상영관을 배정한다"며 "그런 면에서 '군함도'에 상영관을 내준 것은 경제적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스크린 독점 논란은 다음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군함도'의 경쟁작인 '택시운전사' (감독 장훈)가 8월2일 상영을 시작해 극장가를 양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함도'의 투자배급사인 CJ E&M의 계열사인 CJ CGV가 좌석점유율을 고려하지 않고 '군함도'에 상영관을 몰아준다면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을 수밖에 없다. 반면 주말 사이 '군함도'를 본 관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높은 좌석점유율이 유지된다면 '택시운전사'는 선전 효과를 누리고 있는 '군함도'로부터 상영관을 뺏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작’의 소문난 잔칫상, 먹을 것은 없었다



잔칫상이 너무 거할 때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한다. 뭘부터 먹어야 할지, 어떻게 하면 골고루 즐길 수 있을지, 자기 취향에 맞는 종류는 뭐가 있는지, 화려하고 다채로운수록 더 그렇다. 그러나 한 가지만 입맛에 맞지 않거나 수증기 떨어지면 그때부터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화려하고 다채로운수록 더 그러하다. 다른 음식들도 비슷한 건 아닌지, 끝까지 먹고 먹어도 되는지, 급기야 꼬리를 무는 '이 잔칫상의 목적이 뭐였더라'는 회의까지. 아마도 이런 '회의론자'들이 만들어낸 속담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일지도 모를 일이고 서론이 길었지만, 24일 처음 방송된 SBS '조작'을 보면서 이 '잔칫상' 이론(?)을 떠올리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더군다나 이 드라마는 최근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적폐'로 떠오른 (기레기)언론과 (정치)검찰을 비판하고자 하는 목적이기도 드러났다. '조작'의 주제가 그 (기레기)언론과 (정치)검찰, 이들로 투영시킨 한국사회의 권력층과 그 커넥션에 대한 비판이라 더욱 그러하다.

◆ 소문난 잔칫상 조작 "우리는 목격했다. 2016년 하반기를 흐른 거대한 정치적 격변의 시작을 한 언론사에서 찾아낸 태블릿 PC와 집요한 탐사보도가 어떻게 광화문의 촛불로 이어져 세상을 바꾸었는지 극적으로 목격했다." '조작' 제작진이 밝힌 제작 의도의 한 대목이다. 꽤 눈에 띈다. 그 자체로 현실 속 사건과 시대를 꽤 적나라하게 적시하고 있다. 사실 여타 드라마가 기피하는 방식이다. 실제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시선은 시청자 개별마다 다를 수 있기에, 또 작품의 해석을 더 풍부하게 열어두기 위해 '실화' 소재가 아니라면 기피하는 방식이 맞다. 우리가 이런 실제 사건을 소재로 다뤘다고, 이러한 영역까지 건드린다고 과시라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닌 이상... 그런데, '조작'은 다르다. 이틀테면, '조작'은 이른바 '성완중 리스트'를 연상시키는 한 경제인의 상남 스캔들과 리스트, 그의 의문의 죽음을 극 초반 과거 회상에 전면으로 내세웠다. 그럴 수 있다. 이 사건이 검찰과 경찰, 언론과 전방위적으로 얽여있다는 설정은 캐릭터들을 한데 모아주는 중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현실의 사건이 극을 압도하는 순간, 사정이 달라진다. 이미 현실에서 경험한 사건이 드라

마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또 어떤 결말로 귀결될지 시청자들이 알고 있다면, 그래서 기시감을 느낀다면 어쩔 텐가 이미 선과 악이 명백히 결정되어 버린 드라마 속 세계가 생생한 현실감을 주지 못한다면 말이다. '조작'이 그리는 검찰과 언론, 경찰이 딱 그 꼴이다. 한국사회 어느 곳도 부패하지 않은 곳이 없다는 원론적인 '사실'에 입각한 묘사는 그러나 그리 현실적이지도, 성실하지도 않아 보인다. 그건 의문스러운 형 죽음의 진상을 캐기 위해 '날뎌'는 한무영(남궁민)이나 정의로운 검사 권소라(엄지원)의 캐릭터와 활약이 지극히 장르적이고 과장돼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그의 반대편에서 선 강력한 빌런(악당)인 '대한일보' 구대 상무(문성근)의 진형성이 주는 식상함에 기인한다. 심지어, 이제 극 초반인데도 그러하다. 이미 우리는 그 수많은 정치검찰과 부패 경찰, 그리고 정의롭거나 그렇지 못한 언론에 대한 묘사를 대중문화 텍스트를 통해 접해 왔다. 그리고 현실은 어제도, 오늘도 그 사실을 체감시켜 주고 있다. 일종의 '시대정신'과도 같은 것이기에 '조작'은 드라마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한 그 한국의 현실과 싸워야 한다. 그래서 드라마들은 과한 양념과 캐릭터의 선명성으로 승부하려는 함정에 빠지기도 한다. '조작'도 마찬가지다. 1회에서 조직폭력배의 근거지에 잠입 취재를 하고 진짜 '복숭아'를 거는 한무영과 '해국일보' 구성원들의 과한 행동은 '세상에 없는 존재'들의 활약이다. 기지는 경찰이 아니다. 그런데 '조작'은 그러한 양념을 뿌린 채로 출발한다. 상관의 지시에 불복하는 권소라의 개별 행동 역시 캐릭터 설정을 위한 설정이란 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오히려 보폭을 넓히기보다, 양념을 덜 치더라도, 진지하고 세밀한 전문직 드라마

를 통해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부패상을 조망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런 근심이 드는 대목은 또 있다. ◆ 시대정신에 편승하느냐, 시대 정신을 정치하게 묘사하느냐 "여기, 두 가지가 있다. 한 명은 진짜 '날뎌'고 또 다른 한 명은 5년 동안 제대로 된 기사 하나 쓰지 못한 '식물기'자이다. 형 한철호의 비극을 밝히기 위해 스스로 기레기가 된 애국신문 한무영. 그리고 1등 신문 대한일보의 탐사보도팀인 스피드랩팀 전(前)팀장 이지만 현재는 기자로서 생명력을 빼앗긴 상태인, 한철호의 산배 이석민. 기자로서의 생각도 태도도 행동도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한철호의 비극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펜을 들고 진정에 뛰어든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좇는 정의로운 검사 권소라. 안에서 부패한 검찰 조직과 싸우고 밖으로 진실을 위

해 싸우는 진짜 검사. 우리는 세 사람의 여정을 통해 저널리즘에 대한 가치와 희망, 그리고 진실과 상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거창하다고? '언론'을 제대로 다뤄보겠다는 이 제작진의 야심은 그러나 현실에 기반 주요 소재를 뛰어넘는 한무영 주변 묘사로 인해 시작부터 무너진다. 복숭아까지 내걸고 종횡무진 활약하는 전직 유도선수이자 태블로이드 매체이면서 진실을 추구하고 파헤치는(한국사회에 존재하지 않을 법한) 애국신문 소속 한무영의 활약은 '기자를 다룬 드라마 중 역대 최강의 판타지에 가깝다. 출발부터 '조작'은 이렇게 '기레기는 나쁘다'와 '나쁘지 않은 기레기도 있다'는 일차원적인 의도를 너무나도 직설적으로, 강박적으로 강조한다. 한때, 그 기레기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핵심은 비었고 변죽만 울리는 그 기레기랑 닮아 보인다. 굳이 비교하자면, 뛰어난 장르물이자 성실하고 세밀한 직업드라

마로서 최근 상찬을 받는 '비밀의 숲'과 온도 차가 엄청나다고 할까. 그리하여 '조작'이 인물들의 대사를 통해 끊임없이 부르짖는 것이 진실과 정의다. 사회와 드라마(인문 소재를 포함해)를 포괄한 장르에서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반복되어 온 주제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적폐청산'이란 '시대정신'과 더없이 어울리는 주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조작'은 자칫 이 '시대정신'에 편승한다는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각박하고, 반복적으로 '기레기를 외치고, 진실과 정의를 부르짖을수록 더더욱. 소문난 잔치는 역시나 대중성을 깔고 출발하기 마련이다. '조작'도 그랬다. '김과장'으로 향한 남궁민을 비롯해 문성근의 드라마 캠퍼까지 이슈가 됐다. 직설화법의 사회파 드라마를 향한 대중의 관심이 딱 드러나 시점이다. 이 잔치에 언제까지 손님들이 장단을 맞춰줄지 장담은 못 하겠다. 결국, 개인적인 입맛 때문만은 아니다.

‘비밀의 숲’, 최종회 90분 특별 편성

늘어 90분 편성하기로 했다"며 "모든 회차 마다 높은 완성도와 세밀한 구성을 자랑한 '비밀의 숲'은 마지막 회 역시 한국 수사극의 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킨 레전드 회차로 기억될 것이다"라며 밝혔다. 이어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장르극인데도,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는 소감과 함께, "90분 간 눈을 뗄 수 없는 몰입도 높은 스토리 전개에, 세련되고 완성도 높은 연출이 담긴 걸 예정이니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지난주 방영된 13부와 14부에서 영은수(신혜선 분) 검사가 살해된 데 이어, 정체를 숨기고 특입팀으로 활약했던 윤과장(이규형 분)이 검거돼 충격을 안겼다.

惠山이 바라본 오늘의 운세 2017년 7월 28일 금요일 (음력 6월 6일)

★ 헤산철학연구원 010-2622-2350 ★

- ▶ **황소** 36년생 긍정적 사고.48년생 큰 수확을 이룰 것이다.60년생 계약은 절대 안된다.72년생 희비가 교차하니 무리수는 금물이다.84년생 자리를 넘겨주지 않으려거든 멈추지 마라.
- ▶ **황소** 37년생 혼란스러워도 점차 나아진다.49년생 금전 거래에 주의하라.61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73년생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라.85년생 호도하는 마음을 잃지 마라.
- ▶ **황소** 38년생 재물을 잘 관리하라.50년생 새로운 사람을 소개 받는다.62년생 부부관계를 원만히 하라.74년생 기다림을 알아라.86년생 과한 욕심을 버리고 함께 하는 마음을 가져라.
- ▶ **황소** 39년생 안사가 해결된다.51년생 산행을 삼가라.63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75년생 이거다 싶으면 밀고 나가라.87년생 사소한 감정에 주의하라.
- ▶ **황소** 40년생 외출을 삼가라.52년생 노력과 인덕이 비례한다.64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된다.76년생 작은 성과에도 크게 만족하라.88년생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 ▶ **황소** 41년생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라.53년생 건강에 더욱 유념하라.65년생 이사에 신중하라.77년생 끝까지 밀고 나가라.89년생 열심히 하면 진로 걱정은 없다.
- ▶ **황소** 42년생 까치가 집 주위를 맴돈다.54년생 금전 거래에 주의하라.66년생 누적된 불만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라.78년생 순풍에 돛을 높이 올린다.
- ▶ **황소** 43년생 마음을 고요히 하라.55년생 뜻밖의 재물은 없다.67년생 자신의 영역이 커짐을 느낀다.79년생 낫말은 새가 듣고 밤말을 쥐가 듣는다.91년생 정성을 다하면 수확은 분명 있다.
- ▶ **황소** 32년생 출입을 삼가라.44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56년생 근심거리가 생기더라도 집착은 삼가라.68년생 내자신을 알고 맘을 고요히 하라.80년생 오로지 목표를 향해 전진하라.
- ▶ **황소** 33년생 귀인을 정성껏 맞이하라.45년생 믿음 아래 덕을 받는다.57년생 목표를 크게 잡고 멀리보라.69년생 근신하고 자숙할일이 생긴다.81년생 합심하면 인덕이 크다.
- ▶ **황소** 34년생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라.46년생 건강에 더욱 유념하라.58년생 이사에 신중하라.70년생 끝까지 밀고 나가라.82년생 열심히 하면 진로 걱정은 없다.
- ▶ **황소** 35년생 부드러움을 잃지 마라.47년생 믿음을 유지하면 복을 받는다.59년생 뜻밖의 재물복이 있다.71년생 교통사고에 대비하라.83년생 책임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